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지난 6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축하행사에서 불교대표단과 정세균 국회의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점등식을 가졌다.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한중일 불교 대표단 20차 불교교류대회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불교 대표단이 한마음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원만한 회향을 함께 발원하며 끈끈한 유대를 재확인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봉은사 일대에서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비롯해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등 3국 불교 대표단 3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국민화합대회'를 통해 3국의 발전과 화합을 서원하는 자리가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다.

6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국민화합대회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평창올림픽과 함께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동북아 3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 동북아 안정과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자"고 역설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자리를 함께 해, 한국 중국 일본의 공동 번영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평창이 두 번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불교계가 지극한 마음으로 용기를 불어 넣어줬다"며 "이 자리를 통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불교지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했다.

이와 함께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는 세계평화기원법회(9월7일, 봉은사), 국제학술강연회(9월1일,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이 이어졌다.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로 그간 한중일 3국 불교계가 함께 해 온 발자취를 보여주는 영상 및 사진전도 열렸다. 한편 종단협의회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전국 사찰에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글귀를 담은 연등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자원과 협조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3면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이교도와 함께 외치는 ‘적폐 주장’은 종단 근간 위협하는 어리석은 행위”

전국비구니회 ‘승가청규 따라 종단 내부서 해결’ 일성

전국비구니회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외부 시민단체, 심지어 타종교인과 함께 '적폐청산'을 외치며 종단 혼란을 조장하는 교계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종단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외부 시민단체와 타종교인, 정치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승가의 문제는 승가 청규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스님)는 지난 8일 '우려되는 불교계 현실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성명에서 "적폐청산 등을 외치며 외부 시민단체와 타종교인, 정치인들과 함께 종단의 부속함을 침소봉대해 위기를 과장하는 방식의 개혁은 승가

의 위와 정신을 훼손해 종단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구니회는 "불가 수행자의 주장과 건의는 특히 더 정당하고 여법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승가의 문제는 청규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불교 내부의 일은 종단 내에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구니회 성명은 개혁의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위기를 과장하는 방식과 외부 세력과 타종교인의 참여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출·재가 단체들은 종단개혁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지난 7월27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보신각에서 집

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외부단체들과 함께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를 결성해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보신각 집회에는 개신교 집사로 알려진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가톨릭 신자인 박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타종교인이 참가해 불교 개혁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함세웅·문규현 신부, 이해동 목사 등도 '명진스님 제적철회를 위한 시민사회원로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명진스님 징계철회와 종단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른바 명진스님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명진스님과 함께하는 노동자 모임 등 외부세력들도 적폐청산 주장에 가세하며 종단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외부세력이나 이교도 등을 동원해 종단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에 성명 발표에 앞서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중앙총회 정책모임 화엄회 역시 교권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연석회의와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은 오는 14일 오후7시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인론노동조합 등과 함께 대규모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10·27법난 문예공모전 마감 200여점...10월 당선작 발표

10·27법난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법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제1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결과 시와 산문, 만화 등 총 2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본지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함께 지난 7월17일부터 9월1일까지 시와 산문, 만화

등 3개 부문에서 △10·27법난의 진실 △역사적 상처의 치유 △화해와 상생의 정신 확산 △종교적 평화정신의 고취 등을 주제로 작품을 공모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종교탄압으로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최대 수난사로 기록된 10·27법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불자들과 일반인, 젊은 세대들에게 법난의 역사적 의미를 각인시키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종단 '네팔 홍수피해 구호단' 파견 2면

공모 마감 결과, 시 부문은 총 173작품이 접수됐으며, 산문 부문은 36작품이, 만화 부문은 6작품이 각각 접수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은 오는 20일까지 부문별 심사위원 개별 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편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오는 10월 중순 발표하며, 대상에

용성스님 가르침 즐기며 배운다 7면

는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은 상금 200만원,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당선작 시상식은 오는 10월27일 봉행되는 10·27법난 37주년 기념법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모전 문예집으로 발간되며, 향후 10·27법난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대중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진영에 깃든 선사의 삶...책향기 10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제1회법난20주년기념)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포산당 혜인대중사 복도탑·비 제막식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조실, 제주 약천사 회주이셨던 포산당 혜인대중사의 수행정신과 덕을 기리는 복도탑·비를 조성하여 제막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큰스님과 인연 있으신 사부대중께서는 왕림하시어 자리를 함께 해주기를 양망합니다.

- 일 시_ 불기2561(2017)년 9월 22일(금, 음 8. 3) 오전 10시 30분
- 장 소_ 은해사 부도전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치일리)
- 연락처_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온국 돈관 분향 삼배
포산문도대표 덕조 구배